

# 부처님 오신 기쁨 온누리 '넘실'

세계인들은 불기 2540년 부처님오신 날을 어떻게 봉축하고 있을까. 부처님께서 밝히신 법도는 온 인류의 희망이며 삶의 지표로 세계인의 가슴을 밝히고 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정보센터 부다피아에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축하메시지가 속속 통째되고 있다. 이 메시지를 보낸 인터넷 이용자는 각국의 인터넷 블로그사이트를 비롯해 스님 및 권위있는 학자, 주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4월 20일부터 접수된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의 봉축 메시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 한국불자 행복을 기원

### 비마라난다 <네팔·룸비니사 주지>

오는 음력4월 보름은 '이삭' 축제로서 부처님의 탄생 성도 열반을 함께 축하하는 날입니다. 이처럼 뜻 깊은 위삭축제를 맞이해 한국인의 번영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깨달음의 '범비' 옵니다

#### 하워드 버마 <미국·명성지도스님>

70이 되는 늙은 일본 정토종 승려로서 부처님 탄신을 함께 축하합니다. 지금 비가 옵니다. 그렇게 풍지도 나쁘지도 않은 단지 비가 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입니까.

### 모든 불교단체에 경축

#### 루이 랭카스타 <미국·캘리포니아대 교수>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한국의 모든 불교단체에 축하를 보냅니다

### 인류번영에 관심 갖자

#### 바산타 비다리 <네팔·고교학자>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해 한국 불자들의 번영과 행복, 평화로운 생활을 기원합니다. 이곳 룸비니 동산에서도 세계의 평화를 기원할 것입니다. 부처님께 서 항상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마음을 쏟으신 것처럼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세계인과 함께 기쁨을

#### 머빈 토마스 <호주·통계학자>

이곳 호주의 브리스번에 있는 대광사에서 지난4월 8일 불탄 봉축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곳은 관음선생님의 숭산스님에 의해 창건된 곳으로 세계인과 함께 부처님 탄신을 축하합니다.

### '현대불교' 노력에 감사

#### 앤드류 <선사들 웹마스터>

부처님 탄신을 경축하는 현대불교신문에 먼저 축하와 감사를 보냅니다. 저희 '선사들(Zen Ancestors)' 홈페이지에서도 이 편지를 올려놓고 회원 모두와 축하하기로 했습니다. 삼보에 귀의하며, 축하합니다.

## 본사 인터넷 부다피아에 보내온 봉축메시지

### 다양한 의식·행사 즐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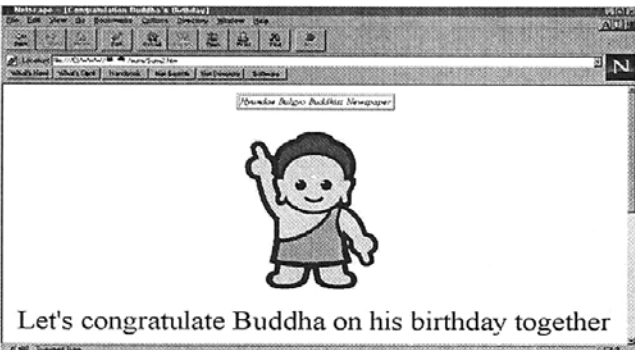
#### 켄카츠 펙 <미국·'법우선생' 웹마스터>

우리는 부처님 탄신일이 되면 불상앞에서 법회를 봉행합니다. 관공의식과 게임 피크닉도 준비합니다. 제가 속해있는 '법우선생'에는 스님이 두 분으로 매일 명상을 가르치고 예불도 드립니다. 회원들은 약 1백명 정도로 많은 불교단체들이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활동들이 한국의 불교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부다넷 축하인사 올려

#### 펜야바로 <호주·부다넷>

사이버 상가를 비롯한 전세계 모든 불



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부다피아에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세계인의 봉축메시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사진은 부다피아 화면에 뜬 봉축메시지> 자들에게 부다넷이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 부처님이 우는 까닭...

#### 부루스 몰츠 <참기학회 인터넷서널>

만일 아이가 비는 어디서 내리는지 물어본다면 나는 그 아이에게 말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울기때문입니다' 또 아이가 왜 부처님이 우는지 물어본다면 '아마 너 때문일 것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전불자 깨달음 이루길

#### 프랭크 테데스코 <세종대 조교수>

부처님 나신을 함께 기뻐합니다. 국제적인 불교단체와 세계불자들은 한국과 한국 불교와 더 가까워질 것이며 부다피아가 통해 많은 정보를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보호에 힘쓰는 많은 불교도들 사회 복지를 위해 힘쓰는 제종단들, 많은 자원 봉사자들과 단체들 그리고 남북한 불교도들이 모두가 깨달음에 도달하기 바랍니다. 제각각의 불성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 아상과 욕심을 버리자

#### 림 다나티 <캐나다·고교교사>

쿠카이의 詩로 부처님 탄생을 축하하겠

습니다. '탐욕과 광기에 쌓여 있을 때 세상은 온통 아수라장. 만약 우리의 아욕을 마음에서 밀어낼 수 있다면 송고한 질서가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불행한 사람이란 명상을 멀리하고 미혹에 빠진 자. 불명의 세계에서 초월과 완성을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하자.'

### 부다피아 활약상 기대

#### 불교도우회 <미국>

우리는 전세계의 불교활동과 계획들을 지원하며 불교가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부다피아가 한국의 불교소식을 널리 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 영원한 사랑 온세계로

#### 크리쉬나 쿨링 <미국·하와이대학생>

저는 부처님이 나신 곳 네팔에서 왔습니다. '평화는 우리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온 세계로. 평화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한국의 불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세지입니다.

### 행복한 불탄축제 되길

#### 달리 키스만 <캐나다·전기전문가>

이곳 캐나다에서도 불탄일 축하행사를 준비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인 캐나다인 모두 모여 연등을 준비하고 음악 시 등의 발표회, 채식주의자를 위한 축제등도 벌입니다. 이곳은 삼우 스님이 설립한 사찰로서 한국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불자들이 행복한 날을 보낼수 있기를 바랍니다.

### 넬리 퍼지는 봉축물결

#### 알프래드 부롬 <미국·호놀룰루>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멀리 퍼져가길 바랍니다. 이곳은 하와이불자협회에서 봉축행사를 벌이며 함께 축하하고 있습니다.

### 불탄일 축제준비 한창

#### 벤자민 브로프 <미국·MIT학술연구원>

저는 FWBO (서구 불교도우회)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우리는 뉴멕시코 알로카(Aryaloka)선원에서 부처님 탄신을 축하하는 각종 행사를 준비합니다. 한국의 불자들도 함께 불탄일을 축하합니다.

### 새해를 맞는듯 기뻐

#### 뎀 진타라시 <리오스>

우리 리오블로 회원들은 매년 4월 13일 위대한 부처님 탄생을 함께 축하하고 새해를 맞이한 것처럼 기뻐합니다.

### 인터넷통한 봉축 환희

#### 올리 리쉬 <미국>

인터넷을 통해 불탄일 봉축 소식을 접하게 되니 무척 기쁩니다. 한국의 부다피아가 통해 더 많은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 불법이 분쟁 끝낼 것

#### 피터 노런 <美프로그램 엔지니어>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는 모든 분쟁을 끝내게 할 것입니다.

### 전세계인 평화의 날로

#### 캐리 트램베트 <호주>

이곳 호주에서는 5월 축하행사 이삭축제(Vesak Celebration)를 진행합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불자협회는 5월12일 난티엔(Nan Tien) 사찰에서 축하행사를 개최하고 팔리어 중국어 한국어 티벳어 베트남어로 동시에 진행되었고 힌두교 유대교 회교 개신교 등의 다른 종교인사들도 초청되었습니다. 이날은 전세계의 평화의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 영원한 사랑 온세계로

#### 크리쉬나 쿨링 <미국·하와이대학생>

저는 부처님이 나신 곳 네팔에서 왔습니다. '평화는 우리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온 세계로. 평화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한국의 불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세지입니다.

### 부처님 말씀을 생활화

#### 노김수 <호주·퀸스랜드대학생>

부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생활합니다.

### 평화와 환희 가득하길

#### 제인 안나랭리 <호주 멜버른대학>

1996년 부처님 오신날이 평화와 환희로 가득차길 기원합니다.

### 법의 수레바퀴 영원히

#### 큰가 상계 <호주국립대학생>

온 인류가 깨달음에 도달할 때까지 부처님의 법의 수레바퀴가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 우리 가정도 불탄경축

#### 클레어 피터스카이 <미국·주부>

부처님의 탄신을 우리 가정에서도 축하합니다.

정리=남수미 기자

## 봉축칼럼 어둠 속에 빛이 있다

몇 달 동안이지만, 많이 잘 통하지 않던 동경체제시절 나의 답답함을 들어주는 것은 가마쿠라(鎌倉)에 가 문화유적을 구경하거나 아니면 바닷가를 거닐어 보는 것이었다. 가마쿠라는 지리적으로는 서울에서 인천과 같은 거리이지만, 천년 전 옛 유적이 그대로 남겨져 있어 문화적으로 보자면 한국의 경주 같은 곳이었다.

말없이 보고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일본 체제의 울적함이 어느 정도 가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나의 마음이 끌리는 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불(大佛)이었다. 바다를 바라보고 말없이 미소짓는 듯한 이 청동(銅)의 부처님은 지상에서 온갖 어려움을 다 포용한 채 잔잔한 너그러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 옛스러운 모습에서 어떤 한국적 자취를 찾겠다는 것은 어쩌면 일본 문화에 대한 알 수 없는 저항감 때문일 것이다.

말 없이 미소짓는 大佛 그러나 정작 나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그 부처님 몸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선뜻 부처님의 뱃속에 들어가 볼 수 없었다. 아마도 내 자신의 마음속 더러움이 혹시 발각되지나 않을까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세번째 방문했을 때 우연히 같이 갔던 대학 후배로부터 자신이 그 속에 들어가 결혼할 상대자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사진을 찍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돈을 내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어쩐지 일본식의 알뜰한 상술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어떻게든 그 후배의 권유를 받아들여 용기를 내 들어가 보기로 했다.

계단을 내려가 부처님 뱃속으로 들어가니 어둠뿐이었다. 아이들은 신난다는 듯이 웃고 떠들었다. 바느질 자국처럼 불꽃불꽃 용접한 자국들 그리고 검푸른 녹음이 여기저기 보이고 사람들이 쓰다듬고 간 굴곡진 자리는 윤기가 반들거리고 있었다. 우리는 물론 한국인답게 먼저 사진을 찍었다. 그 후배의 불빛 속에서 어둠의 공간이 번쩍 스쳐갔다. 사람들이 밀려다시 세상 속으로 나왔을 때, 나에게서 이 세상의 빛이 더욱 이상스럽게 밝게 느껴졌다. 멀리서 반짝이던 가마쿠라 앞 바다의 물결들도 한결 잔잔하게 다가와 출렁이고 있는 것 같았다.

분명히 부처님 뱃속에서 보았던 것은 어둠뿐일 터인데, 왜 그러한 새로움이 느껴지는가 생각해 보았다. 부처님이 배면으로 하고 있는 산들도 더욱 친근하도록 느껴지는 것은 어떤 일일까 하는 의문을 가져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몇 주일이 지난 다음 다시 가마쿠라에 가서 부처님을 바라 보았다. 역시 부처님

은 말이 없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하나의 전제상으로부터 보인 부처님의 모습이 하나하나 다가왔다. 입술과 눈썹과 코가 새롭게 부조되어 다가왔으며, 어깨와 가벼워진 발의 모습까지 눈에 들어왔다. 처음 사진만 찍었을 때는 눈길을 주지 못했던 부처님 앞 청동(銅)의 공양물들이 매우 잘 배치되어 있음을 보았다.

뒤로 돌아가 부처님의 뱃 모습까지 살펴 보고, 다시 더 뒤쪽으로 나아가 한국에서 봤을 것이라든가 '무량수전(無量壽殿)'을 보았다. 무량수전의 돌계단과 창살을 유심히 보았다. 역시 일본의 건축 양식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여기서 내 일본의 문화적 수탈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왜 부처님의 뱃속에서는 어둠만 보았을 터인데 그것이 세상의 빛을 다르게 느끼게 만들었던 것일까 하는 것이 나의 의문점이었다. 한국에 돌아와 그때 찍었던 사진을 들여다 보았다. 어색하게 웃고 있는 나의 얼굴에서 그때 내가 보았던 것은 어둠이었을까 빛이었을까 생각해 보았다.

결국 들어가 보니 그것은 부처님 뱃속의 어둠이 빛을 새롭게 만들어 준 탓일 것이고, 빛 속에서 어둠이 새롭게 느껴졌기 때문이 아닐까 해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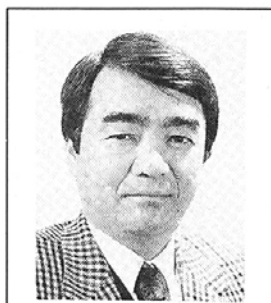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일본이나 한국이나를 따지는 편협한 배타성이 아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인도인이냐 한국인이냐를 따지는 어리석음과 유사하다.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는 그것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공통된다. 어리석음을 밝히는 빛으로서 부처님이 깨우친 불교의 진리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 폭 넓은 생명력을 갖는다. 인간의 육신 속에 어둠이 있고 그 어둠 속에 빛이 있다는 근원적 깨달음은 오늘날도 생동감을 갖는다.

###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

'달마는 왜 동쪽으로 왔는가'라는 화두를 여러 해 전부터 생각해 오고 있다. 그것은 달마는 '왜 서쪽에서 왔는가'라는 화두에 대한 반문이다. 깨달음은 서쪽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 번뇌의 어둠 속에 깨달음의 빛이 있다.

세상 일이 뒤엉키고 굴의 실마리가 잘 풀리지 않는 때면 산에 가는 것이 나의 습관이다. 최근 어느 산에서 어둠 속에 켜 놓은 연등을 보았다. 사람의 발길이 거의 끊긴 산 속에서 불빛이 어둠을 비추고 있었다. 문득 '부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하는 생각이 들었다. 세속적 물질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오늘날의 대중들에게 청정한 마음을 일깨우려 부처님은 오신 것이다. 등불이 부처님이다. 길을 잃고 헤매는 자에게는.



최 동 호 <고려대 교수·국문학>

## 제21차 전국 어린이 지도자 연수회

# “진리의 어린이 모든 이의 행복”

반갑습니다. 미래불교의 희망인 어린이들을 위해 끝없는 보살행을 실천하고 계시는 지도자 여러분!

해가 갈수록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본회에서는 여름불교학교의 새로운 방향 제시를 하고자 올해도 여념없이 제21차 연수회를 부처님의 자비심아래 대구 동화사에서 마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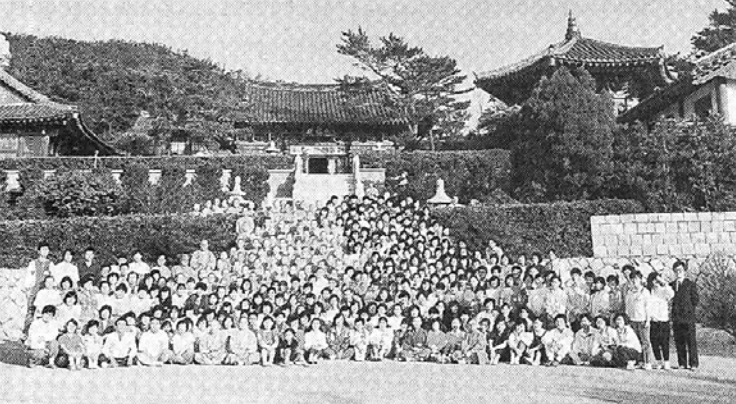
정보화시대, 세계화시대를 맞아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마련되는 이번 연수회는 PC·인터넷을 통한 어린이교육, 첨단 영상기법으로 보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특별법회, 찬불가, 저학년·고학년과 함께하는 부처님공부, 여름불교학교 운영과 교재·교구 활용법, 우리 전통문화와 함께하는 민속음악 등 다양하고 독창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변화하는 세계정세에 발 맞추어 우리나라 어린이 불자 양성의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많은 이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어린이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사부대중은 빠짐없이 동참하시어 가슴속에 청정한 발원을 새겨 가지기 바랍니다.

불기 2540년 5월 좋은날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원장 성 타  
총재 정 관 합 장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장 철 오

주요강의	감사	비고
어린이는 모든 이의 행복	철오스님	본회회장
여름불교학교 교재 활용법(1) -저학년과 함께하는 부처님 공부	윤성스님	본회이사
여름불교학교 교재 활용법(2) -고학년과 함께하는 부처님 공부	덕진스님	본회 이사
여름불교학교 교재 활용법(3) -여름불교학교 운영과 교재, 교구 활용법	김미옥	육련유치원 원장
우리 전통문화와 함께하는 민속음악 -궁중음악, 마당놀이, 어린이들에게 국악의 소중함을	김종엽	KBS, EBS 전통문화 및 국악프로그램 진행, 계원예술대학강사, 마당놀이 극인
예쁘게 만들어요! -여러가지 창의적 도구를 이용한 만들기	김영만	KBS1 TV 유치원 하나, 둘, 셋 만들기 강사
영상으로 보는 여름불교학교 -각종 특별프로그램 소개	본회사무국	
아기자기 깜찍놀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한 놀이 -여름불교학교에서 쓰이는 재미있는 놀이	박철수	도레미 이벤트 대표
멀티미디어 세상! 우리도 준비합니다. -PC통신, 인터넷을 통한 첨단 어린이 교육	데이콤	
부처님 노래를 배워봅시다. -여름불교학교에 쓰이는 찬불가 운동	배동순/박경화	



- 일 시 : 불기 2540년 6월 8일 오후 5시 ~6월 9일 오후 3시
- 장 소 : 대구 동화사
- 준비물 : 동참금 3만원, 필기도구, 세면도구, 모포  
강의준비물(양면색종이 5통, 풀, 가위, 색도화지 8장, 고무밴드, 유리테이프, 종이컵 4개, 우유곽 1개)  
※ 강의 준비물은 본부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문 의 : TEL (051)808-4569, 4570 FAX (051)808-4571
- 미리접수받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당일 접수가능  
• 기 간 : 5월 15일~5월 31일까지  
• 우체국 : 601310-0037877-11  
• 예금주 : 대불어(조 중 환)
- 실명제 관계로 송금하신 분은 꼭 전화 주십시오. (연수회 당일 영수증 필수 지참)
- 군포병은 사단법인 불국토에서 동참금 50%를 지원합니다.